

추상예술 선구자 양수아 화백 '독일 초대전' 성료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1월호

# “격동의 시대, 황폐한 영혼에서 피워낸 예술혼”

## ‘강강수월래’·드로잉 등 40여점 전시

“양수아 화가는 이중섭 화가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활동 공간과 걸어온 예술 여정은 다르지만요. 그러나 두 화가의 마지막 삶은 고통스럽고 고독했습니다. 가난과 좌절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화가들의 삶은 언제나 숙연함을 느끼게 해요.”

미술평론가인 김희경 박사는 양수아 화가(1920~1972·본명 양희식)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양수아 화가는 ‘고전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닮았다. 가난과 고독, 병마와 좌절, 그리고 식물을 견사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까지.

양수아는 불우한 시대를 살았다. 그의 시대가 불우했고 그의 삶이 불우했다.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6·25전쟁 등 근현대사 굴곡의 시간을 통과했으며 그의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빠어나게 맑다’는 뜻의 이름 수아(秀娥)에는 예술가로서의 운명 같은 것이 노정돼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그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다.

양수아 화가 독일 초대전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시는 지난달 14~29일 독일 뒤셀도르프 ‘PART 2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 동구 미로센터와 독일 뒤셀도르프 ‘PART 2 갤러리’의 국제예술 교류사업으로 진행됐다.

현지 동행했던 미로센터 천혜원 팀장은 “이번 초대전은 격동의 한국근현대사를 건너오며 내적 좌절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저항을 통해 한국적 앵포르멜(표현주의적 추상예술)에 도달했던 양수아 화백의 삶과 예술을 해외 무대에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시에는 아들 양승찬 나인갤러리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강강수월래’를 비롯해 구상 드로잉(10점), 추상 드로잉(8점), 구상회화(7점), 추상회화(10점), 자화상(5점) 등 40여 점이 선보였다.

1920년 보성에서 태어난 양수아 화백은 소년 시절 삽화가를 꿈꿨다. 소학교 시절부터 시모노세키에 유학한 것을 보면 당시는 유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징집문제로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그는 화가가 되기 위해 가와바타 동경의 미술학원에 다녔다.

만주시절에는 기자로도 활동했으며, 해방 직후에는 목포에 정착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일본인 아내 아베 에스코와 결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제자 곽옥남과 재혼했다. 목포와 광주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미술교육자와 비평가의 삶을 살았다.

해방 직후 양수아 화백은 광주 미국문화원을 통해 앵포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 등 새로운 예술사조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서구의 미학적 형식을 매개로 자유롭게 새로운 조형언어를 구사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냈다.

아들 양승찬 대표는 “해방공간과 이후 6·25를 거치며 부친은 당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념에 휩쓸리면서 평생 짓눌림의 삶을 사셨다”며 “아버지의 그림이 이



지난달 14~29일 독일 뒤셀도르프 'PART2 갤러리'에서 양수아 화백 초대전이 열렸다. <미로센터 제공>

술을 해외 무대에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시에는 아들 양승찬 나인갤러리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강강수월래’를 비롯해 구상 드로잉(10점), 추상 드로잉(8점), 구상회화(7점), 추상회화(10점), 자화상(5점) 등 40여 점이 선보였다.

1920년 보성에서 태어난 양수아 화백은 소년 시절 삽화가를 꿈꿨다. 소학교 시절부터 시모노세키에 유학한 것을 보면 당시는 유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징집문제로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그는 화가가 되기 위해 가와바타 동경의 미술학원에 다녔다.

만주시절에는 기자로도 활동했으며, 해방 직후에는 목포에 정착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일본인 아내 아베 에스코와 결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제자 곽옥남과 재혼했다. 목포와 광주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미술교육자와 비평가의 삶을 살았다.

해방 직후 양수아 화백은 광주 미국문화원을 통해 앵포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 등 새로운 예술사조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서구의 미학적 형식을 매개로 자유롭게 새로운 조형언어를 구사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냈다.

아들 양승찬 대표는 “해방공간과 이후 6·25를 거치며 부친은 당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념에 휩쓸리면서 평생 짓눌림의 삶을 사셨다”며 “아버지의 그림이 이

역만리 독일에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게 돼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박남희(미술비평)는 “2023년 뒤셀도르프에서 그의 작품을 선보이는 일은 앵포르멜이라는 시대 양식과 양수아 개인 양식의 교차점을 확인하고 개인 양식으로서 앵포르멜에 이르렀던 내밀한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애도와 우울의 의례”라고 평했다.

생전의 양수아는 24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600여 작품의 작품을 선보였다. 사실적 구상화와 비정형 회화 양식의 결합은 미국 추상표현주의와 프랑스 앵포르멜 양식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에게 격동기 추상미술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확고하게 구축했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이유다.

이태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해방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가 가운데 한 분이 양수아 화백”이라며 “이번 독일 전시 성공을 계기로 다른 지역 작가들이 해외에 많이 알려져 광주 동구가 미술 문화를 선도해가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현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미로센터 천혜원 팀장, PART 2 갤러리 대표 안드레 슈나우트, 공동대표 마크 스펙, 비평가 올리케 레헤만을 포함해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가 80여 명이 방문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에스엔



## 독서문화 운동 ‘책 읽는 사람, 책 읽는 도시’ ‘남도의 섬으로 떠나는 블루투어·ESG 여행’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다. 책을 읽는데 계절이 따로 있나 싶지만, 사자성이 ‘등화가진(燈火可親·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어 학문을 탐구하기에 좋은 계절)’을 봐도 그렇고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면 독서를 하기에 딱 좋은 계절임은 분명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11월호 특집은 ‘책 읽는 사람, 책 읽는 도시’다. 종이책만 읽던 때를 지나 전자책과 오디오 북, 유튜브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독서 트렌드를 살펴보고 지자체의 독서문화 운동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독서모임을 소개한다.

이달의 ‘에스엔 초대석’ 주인공은 1827년 ‘정해박학’을 다룬 다른 장면 역사소설 ‘사랑과 혁명’ (전 3권)을 펴낸 이야기꾼 김택환이다. 곡성으로 집필실을 옮긴 작가는 200여 년 전 천주교인들이 갇혔던 감옥 앞에서 살며 일고지 6000매 분량을 7차례 퇴고했다. 글을 쓰며 농사를 짓고 생태적방도 운영하는 ‘마을 소설가’의 문학과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듣는다.

깊어가는 가을, 클래식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지난 6월 옛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광주예술의전당’으로 새로운 이름을 달고 시민들 곁으로 돌아왔다. 3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광주예술의전당은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클래식 대중화를 모토로 내건 공연계의 색다른 시도와 광주예술의전당의 무대를 소개한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럽’은 지리산과

섬진강, 날찍한 들녘, 순박하고 인경 넘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 구례로 향한다. 천은사 ‘상생의 길’과 ‘섬진강 대숲길’, 피아골 단풍, ‘지리산 스카이라인’ 등 늦가을 햇살을 한껏 안은 구례는 매력의 고장이다. 지리산 초피를 이용한 육포와 직접 농사지은 팥으로 감강 양갱을 만들고 있는 청년농부들도 만나본다.

‘新冠남관광역지도’의 테마는 ‘남도의 섬으로 떠나는 블루투어·ESG 여행’으로 정했다. 섬은 여행의 시작이자 종착지이기도 하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를 보며 섬을 찾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섬을 찾고자 할 때도 섬으로 향한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남도의 섬, 그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여수·고흥 백리섬섬길과 친환경 투어를 할 수 있는 신안 비금·도초도를 찾아 떠난다.

특별기획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편은 오는 4~5일 개최되는 ‘2023 목포 문화재야행’과 ‘1897 타임머신 문화예술 난장 in 해관’을 소개하고, 조선 중기 선비 만귀 장강우가 생의 만년에 돌아와 광주 서구 세하동에 지었다는 만귀정(晩歸亭)을 찾아 절경과 풍류를 노래했던 당시의 흔적을 찾아본다.

이외에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이 고향 흥성에 등지를 틈 ‘이응노의 집’을 들여다 보고, ‘도시를 바꾼 아트 투어리즘’은 전원형 미술관 ‘뮤지엄산’으로 일약 관광도시가 된 강원도 원주로 떠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사물의 변주:마음에 일으키는 미세한 저항’

광주여성가족재단, 12월 27일까지 재단 3층

일상적 사물을 초점화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 이목을 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12월 27일까지 재단 3층에서 열고 있는 최희정 작가의 ‘사물의 변주:마음에 일으키는 미세한 저항’전이 바로 그것.

입구부터 볼 수 있는 ‘경계를 밟고 넘어’는 나무봉에 석고, 실을 매단 가변형 설치 작품이다. 그동안 석고로 만들어졌던 문지방의 ‘물성’을 재해석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말해보주세요’는 스탠드 마이크 다섯 개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이다. 이소영 비평가는 “누구나 마이크 앞에

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다.

양배추를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양배추를 가늘게 준비해 주세요’와 ‘Understanding of Paper Plane’은 영상 전시물이다. 양배추를 썰 도구를 정하기 위해 뽑기 기계를 돌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스크린 앞에는 실제로 뽑기 기계가 설치돼 있는데, 기계를 돌리자 캡슐이 나왔고 그 안에서 나온 작은 석고 조각에는 망치, 톱 등 공구들이 양각돼 있었다. ‘무작위’라는 시스템이 주는 민주적 평등 등을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다.



‘추천덕목&권장태도’

이외에도 시력테스트를 연상케 하는 수채화 ‘추천덕목&권장태도’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여성가족재단 제6회 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를 통해 열리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세월호 곁에 남은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416생명안전공원 예배팀, ‘포기할 수 없는 약속’ 북 콘서트

### 2일 북구 우리빛교회

봄이 돌아오면 유독 많이 아픈 이들이 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만 9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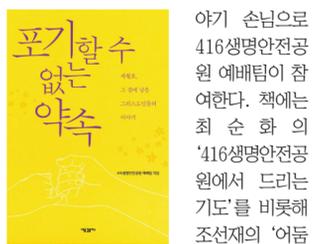
그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에게 곁을 내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기독교인들이 있다. ‘416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이 그들. 이들은 2015년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주자장의 컨테이너 박스 기독교 예배실에서 매주 기독교인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기억과 동행 예배를 드렸다.

‘세월호, 그 곁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416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은 2일 우리빛교회(광주 북구 금재로 39)에서 오후 7시 북 콘서트를 연다.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책 제목을 주제로 내건 이번 북 콘서트는 성서광주,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며 416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이 주관한다.

이번 북콘서트는 올해 4월 발간된 책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을 주제로 펼쳐지며 이



이야기 손님으로 416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이 참여한다. 책에는 최순화 의 ‘416생명안전공원’에서 드리는 기도를 비롯해 조선훈의 ‘어둠 속에서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수록돼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사회적 참사를 당한 이들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환경과 업사이클링

환경과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예술 공연.

크리에이티브아트(대표 이승규)가 ‘이계, The Two Seasons’를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공연은 ‘사계가 이계로 오고 있다’(김지소시)에서 영감을 받아 펼쳐진다. 지구를 문명개발로 수단화하는 인간의 욕망이 지구의 사계절을 이계(여름, 겨울)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미다.

본공연에 앞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산과 피아니스트 이승규가 ‘유니크 바이올린’ 합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바이올린 소나타’, ‘소멸과 소생’, ‘양립의 거리 중 이장우 가곡’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폐농기구, 드럼통 등을 재활용한 유니크 첼로 퍼프렛의 무대도 볼 수 있다. ‘배사메무초’, ‘진혼’, ‘위로’ 등 이승규 작곡한 곡들과 마이클잭슨의 ‘힐 더 월드’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동학 작가의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라는 주제의 인문학 강연도 열린다. 이어 환경보호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다큐멘터리 ‘소멸과 소생’을

### 크리에이티브아트 ‘이계’ 공연...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 8월 업사이클링 뮤직센터 ‘물고’ 오픈 공연에서 유니크 챔버 퍼프렛이 개막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상영한다는 계획. 본 공연은 ‘이계, The Two seasons’라는 제목으로 총 5곡을 들려준다. ‘사라지는 얼음’, ‘녹색의 기억’, ‘뜨거움과 차가움’ 등 환경과파괴라는 주제를 삼긴다.

크리에이티브아트 이승규 대표는 “업사이클링 현악기

를 총 16대 개발했고, 창작곡을 만드는 데도 총 1년여 시간이 걸렸다”며 “이같은 활동을 이어온 동기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예술’을 매개로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